

# 與 “막말투어 중단하고 국회 돌아오라”

“나경원, 비속어…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 사퇴하라”

“경제 녹록지 않아 추경 시급…5·18 특별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비속어 ‘달창’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인권유린·성차별·모욕’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아무리 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지층에조차 모욕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막말투어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한국당 장외집회가 선동·혐오표현 경연장, 막말 경쟁장이 되고 있다. 공당의 원내대표, 여성 정치인이 서슴없이 썼다는 데서 놀라울 따름”이라며 “여성을 차별과 억압의 희생물로 생각하는 의식이 식민지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독재체제 위에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녹아들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달창’은 문 대통령 여성 유권자를 대상화해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며 “막장 열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제발 선동정치를 하지 말고 민생 국회를 열어 재난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민, 포항시민을 위한 추경처리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제1야당의 ‘여성 원내대표’가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도 나 원내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남철우 대구시당 위원장과 당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 두류공원에서 나 원내대표가 한 입에 담기조차 낯뜨거운 발언은 대구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달창’은 일베 중의 일베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며 “망언의 책임을 지고 나경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을 떠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5

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5·18 특별법 개정안, 각종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추경안이 5월 안에 통과돼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한국당이 원내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있어 많이 늦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18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 광주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손을 못 대고 있다”며 “한국당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18 행사에 같이 참여해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며 “재해 추경에 경기 대응 추경이 돼야 비로소 완전한 민생 추경이 된다”며 “국회가 멈춰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광주를 찾기 전에 그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갔으면 한다”며 “국회 징계절차나 한국당 징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아가 역사 진실 왜곡이 재발할 수 없도록 법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달창’ 발언 규탄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달창(달빛창녀단)’이란 단어를 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정은 대변인’·‘반민특위’ 등의 논란에 이어 이번엔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성매매 여성에 빗대 사용하는 비속어인 ‘달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 국회 ‘5·18 망언’ 징계 또 제자리걸음…15일 재논의

윤리특위 간사 회동했으나 의견 차이 못 좁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간사 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5일 간사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측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 해촉 대신 자문위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5·18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의 질문에 “저희도 가급적 그 이전 징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 하에 왔는데 자문위가 파행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15일 선출되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자문위에 대한 당의 의견을 바꾸면 5·18 망언 의원들은 18일 이전에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

윤리위는 앞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가 파행하며 징계 절차는 모두 멈춘 상태다. /연합뉴스

## 서삼석,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 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위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조의2)를 두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과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진수기자

## 김경진 “데이터바우처사업, GITCT 선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3일 정부 지역 전문수행기관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구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데이터 구매·가공을 통한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에게 데이터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가격 부담이나 협상력 부족으로 데이터 활용 기회를 포기했던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지금은 바우처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고 적정가격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바우처를 통해 대기업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대·중소기업 간의 ‘데이터 빈부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김명진, 망언의원 국회제명 촉구 가두방송

김명진 민주평화당 서구갑 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홍보차량을 이용해 서구지역 관내를 돌면서 5·18역사왜곡 망언 3인방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가두방송을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양동시장 입구, 광천터미널 앞, 치평동 한국은행 앞, 상무금융시장을 비롯 아파트 단지과 골목 등을 돌며 ‘자유한국당 역사왜곡 망언 3인방 국회제명,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 3인방 의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한 톨도 주어서는 안 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을 단 하루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



표는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망언 3인방을 제명시킨 후에도 5·18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쪽 요구로 그칠 일이 아니라 광주시민들과 함께 망언 3인방 국회제명과 역사왜곡 처벌법 관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미기자

## 평화, 새 원내대표로 3선 유성엽 의원 선출

민주평화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유성엽(59, 전북 정읍·고창) 의원을 선출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과반표를 획득해 재선의 황주홍 의원을 누

르고 원내사령탑 자리를 차지했다.

유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북 정읍에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당내에서는 현재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다. /김진수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 “맛과 멋을 새롭게”

###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